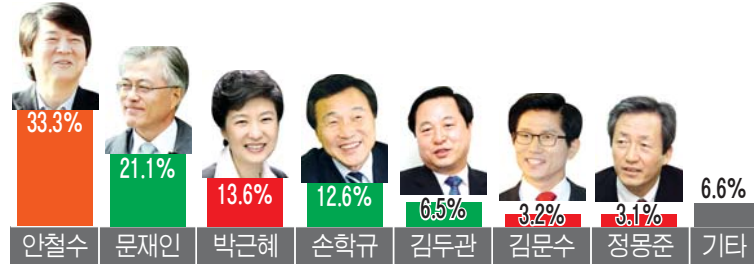


대선 6개월 앞...광주·전남 유권자 1000명 여론조사 ▶ 관련기사 2·3면...여론조사 통계표 인터넷 광주일보에

## 안철수 33.3% 문재인 21.1% 박근혜 13.6% 순

### 안철수 영입보다 민주 후보와 단일화를 민주후보 적합도 문재인·손학규·정동영

대통령후보 지지도(다자구도)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 6개월을 앞두고 광주일보가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대선주자군에 대한 후보 적합도 및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가인 '리서치뷰'에 의뢰, 지난 15~16일 이틀 동안 광주·전남지역 1000명(광주·전남 각 5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안철수 원장은 31.7%를 기록, 1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25.3%, 손학규 민주통합당 고문은 14.6%, 박종연 전남지사가 7.7%로 그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민심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창출의 원동력이 된 데다 야권의 대선 후보 선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대선구도를 뒤흔들 수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7.5%, 정동영 민주통합당 고문은 5.5%, 정세균 민주당 통합당 의원은 1.7%를 각각 기록

했다.

안철수 원장을 제외한 민주통합당 대선주자군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32.6%로 선두를 달렸으며 손학규 고문 19.1%, 정동영 고문 11.1%, 김두관 경남지사 10.8%, 박종연 전남지사 8.9% 등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대선주자군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근혜 의원이 30.1%

로 1위를 차지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15.5%, 정몽준 의원 13.2%, 이재오 의원 4.7%,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4.6%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김문수, 손학규, 정몽준, 김두관 등 여야 대선주자군 7명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33.3%로 선두를 달렸으며 문재인 의원이 21.1%로 뒤를 이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13.6%

의 지지율로 3위를, 손학규 고문은 12.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또 김두관 경남지사는 6.5%,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정몽준 의원이 각각 3.2%, 3.1%의 지지율을 보였다.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42.8%, 민주통합당 경선 참여가 30%, 무소속 출마 8.6% 순으로 조사됐다.

대선에서의 야권연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근의 통합진보당 사태에도 불구하고 64.3%가 찬성 입장을, 21.1%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상별·연령별·지역별 유권자수 비례 무작위 추출을 통한 ARS-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 1400여권 기증 광주일보에 감사장

아름다운 가계 헌책방 '아낌없이 주는 나무'(광주시 북구 용봉동)가 16일 책방에서 개점 3주년 기념식을 갖고 광주일보 등 후원 단체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광주일보는 지난 2010년부터 책 1400여권의 책을 기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주)화인 데코 이상철 명예점장을 비롯해 오원만 헌책방운영위원장, 활동천사 등 5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한편 지금까지 기증된 도서는 18만129권, 기부와 구매 동참자는 3만5000여명, 판매 수익금은 2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 문의 062-655-8975. /김미은기자 mekim@

## 유세차 임차비 부풀리고 커미션만 챙긴뒤 재하청 국고 축낸 '고무줄' 선거비용

### 대검 회계팀 투입 CN커뮤니케이션즈 수사 확대

CN커뮤니케이션즈 등 선거대행업체들이 유세차량을 빌려주거나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실제로 든 비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선관위가 인정해주는 범위까지 관련 업체와 짜고 견적서와 회계서류를 작성할 경우 선관위가 실사에 나서더라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6면〉  
CN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부풀린 선거비용 규모가 얼마인지, 어디에 사용됐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5일 중앙수사부 회계분석팀을 순천

지청에 파견해 압수한 회계서류, 견적서 등을 분석중이다.

1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지역 내 선거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지역 업체들이 13일간 2트럭을 개조한 유세차량을 대여할 경우 1950만~2100만 원을 받는 반면, CN커뮤니케이션즈에서 같은 차량을 빌린 통합진보당 후보자들은 이보다 수백만원에서 1000여만원을 더 보전받았다.

지역업체들은 1트럭인 경우 700만원선, 1.5트럭은 1450만~1600만원선에 선거사무실에 대여하고 있지만 선관위에서는 각각 1000만원, 2500만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납품단가와 보전금액 간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11총선 당시 유세차량을 대여해준 지역 업체 관계자는 "다른 후보자들의 신고금액은 업체의 납품단가와 유사하지만 서울업체에 맡긴 통합진보당 후보자들은 유독 가격이 비쌌다"며 "업체들 사이에서 이같은 소문이 나 당시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문제가 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또 CN커뮤니케이션즈가 유세차량 경우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커미션'만 챙겼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검찰이 지난 14일 CN커뮤니케이션즈 압수수색 전에 지역 선거 관련 업체들을 불러 조사한 맥락도 이와 상통한다. 〈2면에 계속〉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내년 수능 11월 7일 수준별 시험 첫 도입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내년엔 처음으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3년 11월7일에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성적 통지는 11월27일이다. 〈관련기사 7면〉

2014학년도 시험영역은 국어·수학·영어·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기존의 '수리'와 '외국어'영역을 각각 '수학'과 '영어'영역으로 명칭을 바꾼 것 이외에는 현행과 같다.

가장 큰 변화는 국어·영어·수학 영역에 수준별 시험(A/B형)이 도입되고, A형은 현행 수능보다 쉽게 출제하며 B형은 현행 수능 수준으로 출제하는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더위 주춤...오늘부터 장마권 구례의 낮 최고기온이 31.5까지 오르는 등 때 이른 더위가 이어진 17일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황룡강 징검다리에서 가족단위 행락객들이 물에 발을 담근채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상청은 18~19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에 60mm를 최고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5~3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관련기사 7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풀체인지 The new M-Class 출시  
062)226-0001

# 에너지절약 신공(아싸가자)으로 전력낭비를 이기자!

6.14 ~ 6.21 "국민발전소" 건설 주간 "아싸, 가자(Yes, Let's go!)"  
21일 오후 2시, 『전력위기 대응 훈련』 전국 실시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합니다.

검색창에  을 입력하세요

**아** 까자 '25시' : 피크시간(2시~5시)

**싸** (사)랑한다 '26도' : 냉방온도 26°C이상 유지

**가** 법다 '휘둘웃' : 휘둘웃(간편복장) 착용

**자** ~뽀자 '플러그' :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자

2012 하계절전 시민단체 공동캠페인 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MKE 지식경제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에너지관리공단